

다산포럼



**주 윤 정**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미얀마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시민들에게 실탄을 발사했다고 한다. 갑작스러운 쿠데타 소식에, 아시아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눈초리가 문득 떠올랐다. 먼저 IMF 직후 인도네시아로 배낭여행을 갔을 때다. 자카르타의 기차역에서 만난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은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 한국의 투쟁가를 불러주며, 한국의 학생 운동은 자신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준다고 말했다. 운동권 학생이 아니었던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낱설게 그리고 부끄럽게 들었다.

중국 남경대에 학술 교류를 갔을 때에는 중국의 젊은 노동사회화자들과 토론할 기회가 있었다. 그들은 ‘메이리칭니엔’(美利青年)이란 영화를 보았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참을 생각해 보니,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란 영화였다. 한 학자는 노동사회화 강의에서 영화 ‘변호인’ 이야기를 하며 한국의 민주주의의 역량과 민중의 힘을 부러워했다.

네팔의 현직 내내인 벵타람 씨는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 생활하다가, 이주노동운동을 하게 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운동을 배워 간 분이다.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그는 네팔 귀국 이후 현지의 가장 열

미얀마의 쿠데타와 한국의 민주주의

약한 노동자와 히말라야의 셰르파들을 위해 노동운동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학습이 귀중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나라이자 민주주의의 선진국으로 선망의 대상이다. 단지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함께 이룬 경우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여기에 식민지의 핍박과 외세의 침입을 경험했던 많은 아시아인들은 한국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고, 저 먼 서구의 선진국들과는 달리 무언가 배울 수 있고 따라서 볼 것이 있는 나라로 느낀다. 아시아인들은 단지 한국 기업 제품 혹은 한류의 소비자만이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를 배우고 열망하는 시민들이기도 하다.

미얀마에서 쿠데타 소식이 들려온 이후 UN과 여러 나라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UN과 미국은 강력히 규탄하는 반응을 냈지만, 중국은 미얀마의 조속한 안정을 기원한다고만 했다. 양국의 반응에 광주의 5·18 당시 미국의 대응이 떠올랐다.

카터 대통령은 1980년 5월 30일 침묵을 깨고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한국군과 민간 지도자들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완전한 민주정부를 수립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그런 한편 우리가 주력하는 것은 한국의 안보다. … (중략) … 우리는 우방과 친구, 교역, 상대방과의 관계를 단절해 그들을 소련의 영향권에 넘길 수는 없다. 그리고 그들 정권이 우리의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전면 봉쇄할 수도 없다”라고 밝혔다. 카터 대통령에게 인권은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위해 언제든지 잠시 보류할 수 있는 것이었다.

현재 중국에게 미얀마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해상무역로 확장을 꾀하고 일대일로를 통해 남아시아 지역에 세력을 확장하는 중국에게 미얀마는 중요한 길목이다. 군부는 중국 정부와 협력 관계에 있지만, 신정부 수립 이후 이런 관계는 흔들렸다. 군부의 쿠데타는 신정부 이후 단절된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기에, 중국 정부는 최소한 묵인 혹은 방조하고 있다고 외신은 분석한다.

미얀마 군정을 피해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민주화 운동가들은 광주의 민주화운동과 미얀마의 8888민주화운동이 닮은 꼴이며, 같은 경험은 한 나라로서 한국에 배울 바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한국은 문화 부문에서 미얀마를 돕기 위한 공작개발원조(ODA)에 후발 주자로 참여하고 있었다. 미얀마 신정부는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새로운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수립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꾀했다. 영국 식민지를 오래 겪은 미얀마는 식민주의와 군사독재를 이겨 낸 한국식 독자적인 민주주의와 발전의 결합 모델에 대해 관심이 많다.

그런데 현재 미얀마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에 대해 우리 한국 시민사회와 정부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80년대 한국이 흘렸던 민주주의의 피를 지금 다시 흘리고 있는 아시아의 이웃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5월의 광주에서 미국이 그랬듯이 한국은 정치적 혹은 경제적 고려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에 잠깐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국 민주주의를 선망하고 하나의 가능한 모델로 여겨왔던 아시아의 이웃들이, 우리의 침묵과 무관심과 무지에 처절한 배신감과 좌절을 느끼게 되는 건 아닌지 두렵다.

기 고



**김 경 한**  
여수광양항발전협의회 전무이사

우리나라에는 외국으로 수출입하는 화물을 실은 선박이 드나드는 31개의 무역항과 국내의 다른 항만으로 화물을 실어 나르는 29개의 연안항이 있다. 정부는 동서 균형 발전을 위해 부산항과 광양항을 양대 축으로 개발하는 ‘투 포트’(Two-Port) 정책을 펴고 있다. 2006년 부산 신항 개항으로 광양항의 물동량이 많이 감소하면서 전남도, 광양시, 여수광양항만공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이 함께 물동량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공동 마케팅을 통한 홍보 등의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광양항은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와 해운 동맹 변화 등으로 인해 물동량이 더욱 감소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광양항 컨테이너부두는 12개 선석 중에서 8개 선석만 이용되고 있다. 당장 활용할 수 있는 4선석이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해수부)는 부산항 진해 신항(부산 제2 신항)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 부산항 진해 신항은 지난해 12월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예비타당성 분석에서 경제성이 부족하고 종합 평가 점수가 낮아 탈락한 바 있다.

광양항 활성화가 우선이다

하지만 해수부는 투 포트 정책이 무색하게 부산항 진해 신항을 단계별로 쪼개서 다시 추진하고 있다. 광양항 활성화에 주력해온 전남이 허탈감을 느끼는 이유다.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는 부산항에는 방파제 2.2km 건설과 방파호안 6.5km를 포함해 총 약 10조 2000억 원을 들여야 사업이 가능한 진해 신항을 계획했다. 반면 물동량이 갈수록 떨어지고 천해의 조건으로 방파제 건설이 필요 없는 광양항에는 겨우 6000억 원을 투입, 스마트 항만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동서 균형 발전을 위한 투 포트 육성 정책은 온데간데없고 부산항 개발에만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광양항은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실적이 2020년 12월 말 기준 215만TEU(20피트 길이의 컨테이너 크기를 부르는 단위)로 전국 3위 수준이다. 3단계 2차 부두 4선석 규모에 2026년까지 자동화 부두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관련 화물의 비중도 매우 높으며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 LNG 터미널 등 에너지 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에너지 허브 항만으로 발전하는데 유리한 장점이 있다. 또한 광양항은 배후 부지가 넓어 성장 잠재력이 클 뿐만 아니라, 미주·유럽·아시아를 잇는 세계 교역 항로의 중심에 있다는 지리적 이점도 가지고 있다. 부산항 진해 신항과 거리가 한 시간대에 불과한 광양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부산항 진해 신항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10조 원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다.

광양항에는 2036년까지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컨테이너 부두 구축 사업과 광양항 출산단지간 연결도로

개설, 낙포부두 리뉴얼, 남사 하역부두 건설, 여천(묘도)항로 준설, 광양항 제3 투기장 전면 항로 준설 등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한층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 수송 거리를 감축시키고 체선율을 완화하여 물동량 처리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키고 물류 비용 절감과 대기 환경 개선, 배후단지 인근 시민 생활 환경 제고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이는 2030년까지 5조 1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조 80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3만 7000여 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된다. 광양항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 개선 등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와 광양시, 여수광양항만공사, 관계 기관, 단체 등은 세계적인 자동화 항만 건설 추세에 발맞춰 광양항을 최첨단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로 구축해 부두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석유화학·제철·물류 등 배후 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통해 고부가가치 복합 산업 공간으로 조성하여, 아시아 최고의 첨단 복합 항만이자 항만 물류의 거점 항구로 도약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국가적인 이익과 균형 발전을 위해 부산항 위주의 정책적 사고를 뛰어넘기를 바란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예비타당성 분석을 단계별로 쪼개서 진행하면서까지 부산항 진해 신항을 개발하기 보다는 오히려 물동량 처리에 여유가 있고 활용할 선석도 있는 광양항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국가 항만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청정 건강 1번지’ 정남진 장흥

들이고 있다. 또한 억불산(億佛山) 편백나무 숲과 우드랜드 휴양 쉼터의 인기는 전산 예약이 마비될 정도이다. 정상으로 가는 등산로는 노약자나 다소 몸이 불편한 등산객까지 쉽게 오를 수 있다. 전국 어느 산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세심하게 만들어 놓은 데크(deck) 등산길 등 인프라 덕분이다.

유치 국사봉에서 발원하여 강진만으로 흐르는 탐진강에 들어선 ‘장흥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맑은 물을 간직한 다목적댐으로 인근 시군을 비롯하여 멀리 북포·완도·진도까지 상대적으로 상수원이 부족한 남도민의 젓줄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이 강에서는 매년 가장 더운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물 축제’가 열려 연인인 백여 만 명을 웃도는 관광객이 찾고 있다.

탐진강 농업 우수는 간척지와 넓은 평야에서 생산되고 있는 ‘장흥 아미쌀’의 젓줄이다. 이 쌀은 매년 대한민국 10대 명품에 선정되는 등 미질(米質)이 아주 좋다. 또한 소나무 그늘에서 생산되고 있는 ‘장흥 표고버섯’은 전국 생산량의 35% 이상을 차지하며, 그 품질이 우수하여 중국·미국 등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다.

장흥 한우는 육질이 아주 뛰어나 식도락가와 여행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택배 주문도 쇄도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시장에서는 장흥 한우, 표고버섯, 키조개의 환상적인 조합인 ‘장흥 삼합’(長興三合)을 맛보려는 관광객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장흥군에서는 인구 수보다 많은 장흥 한우 5만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득량만(得糧灣)’은 해산물의 보고다. 득량 바다에

서 자라는 키조개(일명 계두), 자연산 굴, 갯장어, 강성 돔, 장흥 매생이는 전국 제일의 명성을 얻고 있다. 장흥군의 농수산물 대표 브랜드인 ‘산들해랑’ 이듬값을 충실히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장흥은 의화이자 문림의 고장으로 조선 시대 ‘관서별곡’을 지은 백광홍 선생을 비롯하여 수많은 문인들이 나왔으며 현대 문단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문인이 120여 명에 이른다. 천관산 기슭에는 문학공원과 천관문학관이 운영되고 있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장흥에서 수많은 의병들이 불길처럼 일어났으며 조선말 동학농민혁명의 마지막 항전지가 바로 장흥 석대들이었다. 이 역사의 현장을 기리기 위해 장흥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건립돼 있다.

또 장흥에서는 2016년부터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하고 있다. 그만큼 군민들의 건강과 휴양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투자를 하는 고장일 것이다.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지금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은 지자체가 바로 장흥군이라고 한다. 관계 당국의 일상분란한 예방 대책과 군민의 자발적이고 철저한 예방 수칙 준수를 통하여 ‘건강 휴양촌’의 명성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올해 장흥군에서는 ‘대한민국 흥이 시작되는 곳, 흥미진진 장흥’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장흥을 널리 알리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면, 맑은 물과 푸른 숲이 있고 흥(興)이 넘치는 장흥을 꼭 한 번 찾아볼 것을 추천한다.

社說

경찰 수사종결권 남용 방지 방안 마련해야

을 들어 검정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간 경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한 사건은 전체 3290건 가운데 31%(1031건)나 된다. 한데 이 가운데 경찰이 재수사를 지시한 사건은 17건, 고소·고발 일들이 이의 신청을 한 경우도 6건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 주거나 위법하게 내사 종결 처리하는 등 일선 경찰의 과거 탈선행위가 잇따라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광주동부경찰 소속 A경위는 지난해 절도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250만 원을 받고 ‘내사 종결’ 처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목포경찰서에 근무하던 B경사도 지난 2018년 절도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를 특정해 신문조사까지 작성하고도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내사 종결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B경사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친척 관계라는 허위 사실을 수사 보고서에 적어 넣기까지 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 B경사는 피의자에게 무상으로 5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일부 경찰관이 과거 제멋대로 사건을 내사 종결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수사종결권까지 갖게 된 경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 결과를 검증하고 위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보완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경찰이 일반적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수사권 강화로 경찰의 권한은 강화되고 그 책임도 막중해졌다. 그런 만큼 수사 결과의 완결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심사 체계와 수사 경찰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수소 경제’ 광주의 미래 이끌 원동력이다

세계 최초로 액화석유가스(LPG)와 액화천연가스(LNG)를 함께 사용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광주에 건립된다. 이는 LPG-LNG 듀얼 시스템을 적용한 국내 첫 ‘그린 뉴딜’ 모델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서 ‘수소연료전지’(hydrogen fuel cell)란 용어가 일반인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물을 전기분해할 때 수소와 산소가 발생되는데, 연료전지는 이러한 전기분해의 역반응을 이용한 장치다. 석유·가스 등에서 추출된 수소를 연료로 공급해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소연료전지는 에너지 효율이 높으며 소음이 없고 온실가스 발생이 적은 친환경 에너지원이다.

광주시는 최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한국중부발전, SK가스, 두산건설, SK증권과 함께 ‘빛고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투자협약 및 착수식’을 가졌다. 발전소는 광주시 서구 치평동 제1 하수처리장 유휴 부지에 민간 자본 815억 원을 들여 12.3 MW급 용량으로 건립된다. 내년 8월 준공되면 시 전체 연간 전력 소비량의 1.1%에 해당하는 9만5000M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이는 3만300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본격 가동되면 기존 화력발전소 대비 연간 5359TOE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1만2588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보게 된다. 아울러 공기 중 미세먼지를 제거해 성인 13만여 명이 호흡할 수 있을 만큼 공기 정화 등 다양한 환경보호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이날 투자 협약식에 참석한 정세균 총리가 “21세기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갈 수소 경제의 맨 앞자리에 대한민국이 있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가는 수소 경제가 광주의 미래를 바꿀 새로운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無等鼓

국내 최대 모바일 플랫폼 ‘카카오톡’을 만든 김범수(55)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설 명절 연휴를 앞둔 지난 8일,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가 누적된 사회 전반에 신선한 파장을 일으켰다. 자신이 가진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것이다. 김 의장은 대표적인 자수성가형 기업인이자 1세대 정보기술(IT) 창업자다. 한계일 창업주로 NHN 공동대표를 지낸 그는 카카오 창업으로 모바일 플랫폼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진정한 성공

그의 재산은 카카오 이류브 홀딩스가 보유한 카카오 주식(11.15%, 4조5380억 원)까지 10조 원이 넘는다. 따라서 기부 금액은 무려 5조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통 큰 결단의 배경에는 코로나 19라는 상황과 그의 기업 철학이 맞물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카카오는 국가·사회적 재담인 코로나19로 타격을 입기보다 오히려 기업 가치가 급등한 대표적 기업이다. 여기에 코로나로 심화된 사회 전반의 양극화는 평소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해 왔

던 김 의장의 결단이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기부 방식도 기존의 모델에서 벗어나 사회 참여형 플랫폼으로 접근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된다.

김 의장은 1800년대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인 랄프 월도 에머슨의 ‘무엇이 성공인가’라는 시를 자주 읽는다고 한다. 그의 기업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 그는 이렇게 마무리된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만들고 떠나는 것/ 당신이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 라도 더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를 차치하더라도 저성장 기조에 잠재 성장률까지 계속 추락 중이다. 소득 불균형으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는 사회·경제적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할 지경이다.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 여기에는 기업의 역할이 참으로 막중하다. 김 의장의 결단이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진정한 성공’을 여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임동욱 선임기자 겸 서울취재본부장

기 고



**박 안 수**  
말뚝이카데미 원장·경제학 박사

“맑은 숲, 푸른 산” 건강 휴양촌 장흥군입니다.” 장흥군에 들어서면 자동차의 위성항법시스템(GPS)에서 나오는 장흥을 알리는 홍보 멘트이다.

본디 ‘장흥’이라는 지명은 지금으로부터 천여 년 전인 고려 인종이 길게 흥하라는 뜻으로 ‘장흥부’(長興府)를 하사한 이름으로 장구한 세월 동안 단 한 번의 변경 없이 사용되고 있다.

장흥에는 다도해를 품고 있는 전남도립공원 천관산(天冠山)이 있다. 천관산 기암괴석과 정상의 역새는 가을의 장관이다. 또 자연적으로 자라난 전국 최대 편백나무 군락지에서는 요즘 붉디붉은 꽃망울들이 관광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정상의 연대봉에는 고려시대부터 위기 상황을 알리는 봉화가 있어 그 역사도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황제의 익산관(翼善館)을 닮은 제암산(帝巖山)에서 시작하여 사자산을 거쳐 안양 삼비산까지 이어진 철쭉은 전국 최대의 면적을 자랑한다. 철쭉이 만개하는 시기에는 ‘철쭉 축제’가 열려 상춘객과 등산객을 불러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속 신청 배달 안배))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 부 220-0649	문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 부 220-0632	예향 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 부 220-0663	사진 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 부 220-0652	체육 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